

융합적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의 매개검증에 관한 연구

오미섭*

호남대학교

A study on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and Parameter Validation of the Sense of Community

Mi-Seob Oh*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사이에 공동체의식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확인되었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함께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 **Key Words** : 융합적 학교적응, 부모양육태도, 공동체의식, 매개변수, 청소년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how effects of parental attitudes, Sense of Community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verified was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r data analysis, we have use the first year data for the 1st 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in 2010'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study shows that parenting attitudes and Sense of Commun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the Sense of Community have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among on parental attitudes and school adjustment. Thus, efforts to foster individual's Sense of Community and develop desirable parenting attitude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 **Key Words** : Convergence school adjustment, parenting attitudes, Sense of Community, Parameter, adolescents

1.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도기로서,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심하여 불안과 고민이 급격히 발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학교에서의 공부, 시험 등의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생애주기상 가장 민감하며 긴장감과 초조함, 심리적 부담감

*Corresponding Author : Mi-Seob Oh(hidystar@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1, 2015

Revised January 18, 2016

Accepted February 20, 2016

Published February 29, 2016

을 많이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성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1].

청소년과 밀접한 다양한 환경들이 있지만 학교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하루를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적응은 매우 중요한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에 청소년이 잘 적응하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조절 능력이 생기지만[2],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면 또래갈등, 집단폭력, 왕따, 자아존중감을 상실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비행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가장 가깝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정은 최초의 사회생활의 의미를 가지며 최소단위로써, 부모는 자녀의 최초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 방식은 청소년의 다양한 심리·정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위와 함께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써, 사회성과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야 하는 청소년 시기에 공존의 윤리를 바탕으로 낯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절실한 요소이다. 이를 통해 튼튼한 연대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상호신뢰와 민주성, 개방성을 확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사이에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은 개인이 태어나면서 가족과 더불어 최초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습관과 지식을 획득하고 인격의 기초를 닦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3].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하여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

의하고 있지만 Becker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며,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4,5].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탐구한 연구들은 크게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지만 주로 부모 요인을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6].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변인이 사회적 관계의 범주인 부모와의 관계로 밝혀지면서 부모가 평소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애정으로 지지해줄 때 청소년은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보고한다[7].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동향에서 서주연의 연구는 본 연구 데이터인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의 양육방식 부분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영역 중에 부모감독, 부모애정,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과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공동체의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의식이란 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자신을 그 공동체의 성원으로 생각하며 함께 속한 타인들과 더불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의식이다[9].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발달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시민의식과 봉사활동과 같은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생 자치활동의 참여, 학내에서의 출선수범 등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발전하므로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0].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연대감, 이타성, 타인을 배려하는 의식, 공동체 규범을 준수하는 질서 의식 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식은 사회적 책임감이나 연대감을 갖게 되므로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연결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라 하여 공동체감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입증해 주었다[11]. 학교는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의존하고 상호의무감을 느끼면서 공동의 목표와 이익 그리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9년 4월기준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을 활용하여 16개 특별시, 광역시, 시도별 중학교 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 표본 수에 따라 학교 수와 학교를 결정하고, 추출된 중학교 1학년의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분석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며, 전국의 중학교 78개 학교 1개 학급의 총 2,351(남학생 1,177명, 여학생 1,174명)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실시하였으며, 학교적응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2 연구도구

3.2.1 종속변인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10)이 개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설문지의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의 10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코딩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광수란의 연구에서 학습활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2이며, 학교규칙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70이다[13].

3.2.2 독립변인

독립변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설문지 조사대상자의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허모언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14]. 척도는 21문항 6개 하위요인(감독 3문항, 애정 3문항, 비밀관성 3문항, 과잉기대 4문항, 과잉간섭 4문항, 합리적 설명 4문항)

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코딩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3.2.3 통제변인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 가족구성, 가구소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가족구성은 2집단(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부모(아버지와 어머니)+자녀 외)으로, 가구소득(연간소득)은 3집단(0원-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4,800만원 미만, 4,800만원이상-50,000만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분석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분석대상자에 대한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전체 분석대상자 수는 2,351명이며 남학생이 50.1%를 차지하는 1,177명, 여학생이 49.9%를 차지하는 1,174명으로 남학생이 조금 많았다. 가족구성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 1,837명으로 78.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외'가 514명으로 21.9%로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은 '0원-2,400만원미만'이 529명으로 22.5%, '2,400만원이상-4,800만원미만'은 826명으로 35.1%, '4,800만원이상-50,000만원'은 864명으로 36.8%로 나타났다.

4.2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계에서 공동체의식 매개효과 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첫째, 통제변수인 분석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요인을 투입한 모형 1의 경우, 전반적으로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F=6.711,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R^2=0.056$ 이며, 연간가구소득($\beta=0.058, p<0.1$)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경우,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F=18.674,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R^2=0.217$ 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1에 비해 설명력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alyzed

Division		collection (Number of people)	(%)
sexuality	men	1,177	50.1
	woman	1,174	49.9
Family structure	father+ mother+children	1,837	78.1
	etc.(if not the father+mother+children)	521	21.9
household income (annual income)	0 ~ 2,400	529	22.5
	2,400 ~ 4,800	826	35.1
	4,800 ~ 50,000	864	36.8
Total		2,967	100.

<Table 2>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b	β	b	β		
Control variables	sexuality(woman=0) men	.291	.034	.251	.029	.011	.001		
	Family structure (father+ mother+children) etc.(if not the father+mother+children)	-.422	-.033	-.301	-.023	-.038	-.024		
	household income	8.098	.058	7.547	.054	6.344	.046		
	parenting attitudes								
parenting attitudes	parental monitoring, parental affection inconsistency			.658 .284	.292 .127	*** **	571 .218	.253 .097	*** *
	Excessive expectations			-.126	-.060	†	-.094	-.044	†
	Excessive interference			.073	.045		.022	.013	
	Rational explanation			-.033	-.020		-.063	-.037	
Sense of Community				.053	.030		-.051	-.029	
Constant		26.248***		17.252***		14.187***			
R ²		0.056		0.217		0.304			
R ² Increase				0.161		0.086			
R ² for the increase F values				34.617***		124.670***			
F		6.711***		18.674***		27.7447***			

† p<0.1 *p<0.05 **p<0.01 ***p<0.001

16.1% 증가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중에서 부모감독($\beta = 0.292, p < 0.001$), 부모애정($\beta = 0.127, p < 0.01$), 비밀관성($\beta = -0.060, p < 0.1$)이 학교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는 부모감독, 부모애정, 비밀관성 순이다. 반면에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설명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감독수준과 부모애정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지고, 부모의 비밀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공동체의식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회귀모형이 전반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7.447, p < 0.001$), 공동체의식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beta = 0.315, p < 0.001$). 즉, 부모양육태도(독립변수)와 공동체의식(매개변수)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3의 경우 공동체의식(매개변수)이 학교적응(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모형 2와 모형 3을 비교할 경우, 부모양육태도(독립변수)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즉, 공동체의식이 투입되지 않았을 때의 부모양육태도 중 부모감독의 영향력은 $\beta = 0.292(p < 0.001)$ 인 반면, 공동체의식이 투입되었을 때 부모감독의 영향력은 $\beta = 0.253(p < 0.001)$ 로, 부모애정 영향력은 $\beta = 0.127(p < 0.01)$ 에서 공동체의식이 투입 되었을 때 부모애정 영향력은 $\beta = 0.097(p < 0.05)$ 로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공동체의식이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계에서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동체의식이 갖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감독($Z=5.479, p<0.001$), 부모애정($Z=2.798, p<0.001$)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결과 공동체의식은 부모감독, 부모애정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감독과 부모애정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감독과 부모애정이 클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며 그 결과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개입은 부모감독과 부모애정, 공동체의식, 청소년의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공동체의식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15]. 즉,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나 훈련과 함께,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16].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의식의 기본원리인 질서나 타인배려, 공익의식, 협동의식 등을 충실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이론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기존 이론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즉,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탐구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Chiessi, Cicognani, & Sonn의 연구에서 밝혀진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확인하고 보강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11].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족체계변수(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체계변수(공동체의식)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관련 변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변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론적, 경험적 논의가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매개변수로 공동체의식을 투입하였는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밀접하게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Seung hwan Oh, "School maladjustment factors influence the youth", *Youth Research*, Vol. 11, No. 1, pp. 161-181, 2009.
- [2] Hui Won Song, "Poverty, whether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cademic motivation, a sense of psychological well-structured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of school adjustment", Ph.D.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0.
- [3] Ja hwa Hong, "Elementary study on students' sense of community formation: Focusing on parenting behaviors of their parents",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2004.
- [4] Becker W. 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Russel Sage Foundation, Vol. 1, pp. 169-208, 1964.
- [5] Hyeon cheol LEE, Seong bo Choi, Kyeong sig Kim,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of middle school students are learning attitudes and relationships: parent's affection, bishops, excessive expectations and interference, rational explanation attitudes towards the center", the 1st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orea Conference Kit, pp. 171-186, 2011.

- [6] Yong jun Gwon, Yeong hee Kim, "Influence of Family Functioning and self-control of the game and the Youth and School Adjustment immersive", *Cheongsongyeonhak Research*, Vol. 18, No. 6, pp. 99-121, 2011.
- [7] Su Ran Gwak, "Analysis of the youth school adjustment", *Sociology of Education*, Vol. 16, No. 1, pp. 1-26. 2006.
- [8] Ju Yeon Seo, "Exploratory Study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and social adaptation of South defector,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2006.
- [9] Gha na Park, "Impact on the sense of community youth engagement activities", *Cheongsongyeonhak Research*, Vol. 16, No. 10, pp. 273-306. 2009.
- [10] Won tae Kim, "Study on the social and civic formation of experiential education in high school", *Civic Education*, Vol. 33, pp. 49-88. 2001.
- [11] Chiessi, M., & Cicognani, E., & Sonn, C., "Assessing sense of community on adolescents: Validating the brief scale of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38, No. 3, pp. 276-292, 2010.
- [12]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10.
- [13] Su Ran Gwak, "Children. Youth self-concept and social relations of the impact on school adjustment", 1st Children and Youth Pane Survey Korea Conference Ki. 2011.
- [14] Myo Yeon Her, "Youth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Scale Development", Ph.D.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2000.
- [15] So Young Jang, "Effects of affectionate attachment parenting behavior of parents and peers euphoria and a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aptation of the early youth",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16] Hye jeong Jo, "Parents and impact on the happiness of friends with young people - every two effects of altruism", The 1st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Kit, pp. 3-20, 2011.

저자소개

오 미 섭(Mi-Seob Oh)

[정회원]



- 2010년 2월 : 호남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2월 : 호남대학교 일반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외래교수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레질리언스, 강점관점